



연혁

HISTORY

1. 고성군의 연혁
The History of GOSEONG

1. 고성군의 연혁(沿革)

시대	연대	연혁
선사 ~ 삼한	기원전	도서지역에서 발굴된 패총 및 각종 토기, 지석묘, 석관묘 등을 통해 신석기 시대 ~ 청동기 시대 고대인들의 생활을 추정할 수 있으며, 2천년 이전의 원삼국시대 변한(弁韓)지역 열두 나라 중의 하나인 변진 고자미동국(弁辰 古資彌凍國)의 건국이 『삼국지』 위서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 (가야)	서기 42년경	한의 광무제 건무 18년 3월에 낙동강 하류에서 건국한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의 6형제 중 막내인 말로(末露)가 소가야국을 건치(建置)하였다. 소가야(삼국유사)라는 하나의 별명을 가진 고자국(古自國)으로 선사인과 삼한의 고자미동국인(신석기인, 청동기인)이, 즉 재지인(在地人)과 내지인(來地人)의 가락국 구천 회의나, 신라의 화백회의의 지도자 선출 방법으로 한기(旱岐)<최고통치자:君>를 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포상팔국연맹체(浦上八國聯盟體)의 중심세력국이었다.
	562년경	「일본서기」에 구차(久嗟) 또는 고차국(古嵯國)이라는 고성(古城)의 이름이 있다. 고대왕국인 가야 여러 나라들은 532년 금관가야가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소가야 또는 고자국도 이 무렵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통일신라	737년	통일신라시대인 효성왕 1년(737년)에 고자군(古自郡)으로 개칭되었다.
	757년	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년) 지방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개칭시 고자군(古自郡)을 고성군(固城郡)으로 개칭하였다. 사주(泗州, 泗川)는 원래 사물현인데, 경덕왕은 사수(泗水)로 고쳐서 고성군의 관할하에 현으로 만들었다. 영선현은 원래 신라의 일선현인데, 경덕왕이 상선으로 고치고 고성군 관할 하에 두었다.
	828년	신라 흥덕왕 3년(828년) 태종무열왕의 9대손인 역대 장상의 혈손으로 무장 김양을 고성 첫 태수로 임명하였다. (얼마후에 중원(현 충주) 대윤에 임명, 그 후 무주(현 광주) 도독으로 전임)

시대	연대	연혁
고려	995년	성종 14년(995년) 고성군이 관할하던 사수현(泗水縣, 현재 사천)을 진주목에 소속시켰으며, 상선을 영현으로 고쳤다. 고성을 주(州)로 승격하고 고주자사(固州刺史)를 두었다.
	1018년	현종 9년(1018년)에 고성현으로 개칭되면서 현의 각 면의 행정구역은 서읍내면, 동읍내면, 상서면, 상남면, 하일면, 하이면, 대둔면, 가동면, 동마면, 서마면, 구만면, 회현면, 화양면, 광일면, 광이면, 광남면, 포도면, 도선면, 춘원면으로 조정되었다. 거제현에 잠시 속했다가 고성으로 복원되고 현령을 두었다.
	1266년	원종 7년(1266년)에 군이 주로 승격되었다. 충렬왕때 남해에 합쳤다가 얼마후에 복원했다. 철성이라고도 부른다.
조선	1448년	세종 30년(1448년) 고성읍성을 축성하였다. 둘레는 3,524척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둘레가 1,710척으로 기록되어있다.)
	1592년	1592년(임진년) 5월 초 당시 현령 김현은 현치소를 자란도의 읍포(고을개)로 이설하였다. (정유재란의 사실상 종전인 선조 31년(1598년) 11월 19일 왜 철수 후 이순신의 노량해전 시 직후까지로 추정)
	1597년	선조 30년(1597년) 고성 수남리의 왜성을 고성 본성에 연접하여 축성하였다. (왜장 吉川廣家)
	1869년	고종 6년(1869년) 8월 16일 통제영이 소재하고 있던 춘원면(春元面)에서 호적관계 분규사건(紛糾事件)이 일어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고종 7년(1870년)에 읍치소를 고성에서 춘원면 통제영내로 옮겨와 사태를 수습하고, 고종 9년(1872년)에 고성현으로 다시 옮겨 왔다. 이때 고성향교도 죽림리로 옮겼다가 함께 옮겨왔다.
	1895년	고종 32년(개국 504년,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로 지방제도를 개정할 때 진주부에 속하여 있다가 고성군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13개 도제(道制)를 실시함에 따라 경상도에서 경상남도로 분리, 도청소재지를 진주로 하였다. (1부 29군)

시대	연대	연혁
대한제국	1900년	대한제국 4년 5월 16일자 칙령 제19호로 고성군의 도선면, 광이면, 광삼면이 진남군에 편입되었다.
	1906년	9월 24일 칙령 제49호로 지방행정구역을 정리할 때 진주군의 문선면, 남양면, 영오면, 영이곡면, 오읍곡면, 개천면이 고성군에 편입되어, 고성군은 23개 면으로 늘어났다.
일제 강점기	1910년	10월 1일 부령 제8호로 면의 명칭 및 구역의 변경은 조선 총독의 인가를 득하여 도의 장관이 이를 정함을 공포하였다.
	1912년	7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129호로 고성군 남양면이 사천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 경상남도령 제2호로 면의 명칭 및 구역을 정할 때 고성군의 면은 동읍내면일원·서읍내면일원을 철성면으로, 상서면일원·상남면일원을 삼산면으로, 대둔면일원·가동면일원을 대가면으로, 동마면일원·서마면일원을 마암면으로, 회현면일원·화양면일원을 회화면으로, 영이곡면일원·오읍면일원을 영오면으로, 광일면일원·광남면일원을 거류면으로, 포도면일원·광이면일원을 동해면으로, 하일면일원을 하일면으로, 하이면일원을 하이면으로, 구만면일원을 구만면으로, 상리면일원을 상리면으로, 영현면일원을 영현면으로, 개천면일원을 개천면으로 병합되었다.
	1918년	10월 1일 철성면을 고성면으로 개칭하였다.
	1938년	부령 제197호(1938. 10. 1.)로 고성면이 읍으로 승격됨으로서 고성군은 1읍 13개면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시대	연대	연혁
대한민국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마암면 좌연리가 개천면으로, 동해면 감서리가 거류면으로 편입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삼산면 이당리, 대독리가 고성읍으로, 개천면 나선리 선동이 구만면 화림리로 편입되었다.
	1984년	8월 22일 고성군 조례 제858호로 고성군 리·동 명칭 및 구역 확정에 따라 고성군의 행정 리·동은 260개로 되었다.
	1986년	6월 30일 고성군 조례 제961호로 하일면 용태리에 가룡을, 춘암리에 맥전포를, 영오면 영산리에 낙안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 리·동은 263개로 되었다.
	1987년	12월 24일 고성군 조례 제1002호로 삼산면 두포리에 와도를, 하일면 학림리에 임포, 송천리에 자란을 증설하여 고성군의 행정 리·동은 266개로 되었다.
	1988년	5월 24일 고성군 조례 제1031호로 고성읍의 동(성내, 서외, 수남, 동외, 송학)을 리로 각각 개정하여 고성군의 행정리는 266개 리로 되었다.
	1995년	4월 26일 고성군 조례 제1429호로 하이면 덕명리에 제전을 증설하였다.
	1997년	12월 31일 고성군 조례 제1537호로 고성군의 이장 정수가 조정되고 고성군의 행정리는 마암면 도전리 기전, 장산리 서장산, 신리 신지, 석마리 감동을 감축하여 262개 리로 되었다.
	2008년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제1924호로 삼산면 삼봉리 하촌을 해명으로 마을명칭을 변경함. 1읍 13개면 119개 법정리 262개 행정리를 둠.
	2014년	「고성군 이장 정수와 행정리 명칭에 관한 조례」 제2142호로 개천면 좌연리 좌이마을을 좌이마을과 월곡마을로 분리하여 1읍 13개면 119개 법정리 263개 행정리로 되었다.